曾子有疾，孟敬子問之。曾子言曰：「鳥之將死，其鳴也哀，人之將死，其言也善。君子所貴乎道者三：動容貌，斯遠暴慢矣；正顏色，斯近信矣；出辭氣，斯遠鄙倍矣；籩豆之事，則有司存。」

독음 · 증자유질 맹경자문지 증자언왈 조지장사 기명야애 인지장사 기언야선 군자소귀호도자삼 동용모 사원포만의 정안색 사근신의 출사기 사원비패의 변두지사 즉유사존

쉬운 풀이(요약) · 죽음을 앞둔 증자는 용모와 얼굴빛과 말씨를 바로잡아 거칠고 교만하거나 믿음 없고 비루한 태도를 멀리하라고 했다. 의식의 세부는 담당자에게 맡길 수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曾 일찍 증 증 / 子 아들 자 / 有 있을 유 / 疾 병 질 질

孟 맏 맹 맹 / 敬 공경할 경 경 / 問 물을 문 문 / 之 갈 지

言 말씀 언 언 / 曰 가로 왈 / 鳥 새 조 조 / 將 장차 장 장

死 죽을 사 사 / 其 그 기 / 鳴 울 명 명 / 也 어조사 야

哀 슬플 애 애 / 人 사람 인 / 善 착할 선 선 / 君 임금 군

所 바 소 소 / 貴 높을 귀 귀 / 乎 어조사 호 / 道 길 도 도

者 놈 자 / 三 석 삼 삼 / 動 움직일 동 동 / 容 얼굴 용 용

貌 얼굴 모 모 / 斯 이 사 사 / 遠 멀 원 / 暴 사나울 포 포

慢 게으를 만 만 / 矣 어조사 의 / 正 바를 정 정 / 顏 얼굴 안

色 빛 색 색 / 近 가까울 근 근 / 信 믿을 신 신 / 出 날 출 출

辭 말 사 사 / 氣 기운 기 기 / 鄙 다라울 비 비 / 倍 곱 배 배

籩 제기 이름 변 변 / 豆 콩 두 두 / 事 일 사 사 / 則 곧 즉

司 맡을 사 사 / 存 있을 존 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